

기사입력: 09.08.08 19:18

인쇄하기

한인 회계법인 CKP, 부실은행 처리 참여...예금보험공사 인증 취득



연방예금보험공사로부터 부실은행 정리 회계법인 승인을 받은 CKP 회계법인의 최기호 대표.

한인 회계법인이 부실은행 처리를 위한 인증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받아 화제다.

CKP 회계법인(대표 최기호)은 최근 FDIC로부터 부실은행이 문을 닫게 될 경우 정리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CKP 회계법인의 최기호 대표 공인회계사는 "부실대출의 규모가 커지면서 최근 3대 주택대출은행인 인디맥뱅크가 강제 폐업사태를 맞는 등 앞으로도 문을 닫게되는 은행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인증취득으로 은행정리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1980년말부터 1990년초까지 불어닥친 이른바 '세이빙스 앤드 론' 위기 때 한시적 정부기관 RTC(성업공사)와 폐업은행에 대한 감사 및 조사활동을 담당했었다.

당시 주택 모기지와 상업용 부동산 융자의 부실이 커지면서 전국에서 1100개 은행과 융자기관들이 문을 닫았다.

김기정 기자 kijungkim@koreadaily.com